

지역 매 아 리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축제연계 '음식 보고회' 가져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이하 향토사업단)에서는 지난 18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정읍구절초꽃축제와 연계한 F&B(food & beverage) 메뉴 개발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유진섭 시장과 향토사업단 위원 20명이 참석하여 구절초를 활용하여 개발된 음식(주메뉴 2종, 간식메뉴 4종)이 구절초 맛과 멋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품평하며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선보인 메뉴는 향토자원인 구절초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인 마, 복숭아 등을 접목하여 구절초의 쓴맛을 줄이고 다양한 식감이 시도됐다. 또한 선명한 구절초 기부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멋까지 더해 그간 접했던 축제음식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음식개발 전문 업체를 통해 개발된 음식은 총 6종으로(구절초 들깨묵탕, 구절초 삼겹살호떡구이, 구절초 소금파래기, 구절초 복숭아 썬부꾸미, 구절초 복숭아 썬빙수, 구절초 복숭아 냉꽃 음료) 남녀노소 모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향토사업단은 이번에 개발된 음식을 '제13회 구절초꽃축제' 음식부스에서 관광객들과 시민에게 시식 및 품평회를 열어 구절초음식의 맛과 멋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18일 오후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직원 3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필요성 및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업무부담 지원단에서 기획조정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재현 전문위원을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은 기업체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세계 분야로 실시된 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기업현장 규제사례'로 정읍시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개선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관점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개선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읍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정읍시는 매년 직원대상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민선7기 발전 전략 정책 포럼

농업·관광·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안 등 심도 깊게 토의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향한 해법 공유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포럼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활용방안에 대해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고창군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혜택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과 연계하여 유익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는 고창군의 관광전략 수립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관광정책에 발맞추어 중산층 관광객 유치 정책,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융합형 관광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등을 위한 기반 정비와 지역 주민과 참여하는 관광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했다.

아울러 고창민의 역사와 생태를 연계한 관광스토리 발굴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조언했다.

농업분야에서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와 송준호 교수는 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고창군 농업현실의 진단 및 마케팅 추진 전략에 대하여 발표했다.

특히 신동화 교수는 고창의 주요 수



지난 18일 동리국악당에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포럼이 개최됐다.

산물인 비지라과 청보리밭으로 대표되는 보리를 활용한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비지라를 이용한 소스개발, 인주, 스낵제품, 식자재 상품으로 이용계획과 보리 면류, 빵, 주류 상품과 보리 잎, 보릿대를 이용한 건강 기능식품으로 개발가능성이 충분하고 국내외 시장선점에 고창군이 큰장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송준호 교수는 고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이 주도하는 조직화·규모화,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 인적자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고창군에서 생산된 쌀값은 전북 도내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과 농민이 협력하여 친환경 쌀 재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북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최근 보리를 구매한 1000명을 조사한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이유를 성인병 예방을 위해 섭취 한다는 의

견이 많았던 만큼, 보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원대 장병원 교수는 생물권 보전지역, 문화관광, 식품분야에 한해 더 특화된 관광과 연계·융합해서 통합적으로 접근 가능식품으로 개발가능성이 충분하고 국내외 시장선점에 고창군이 큰장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대학교 김중기 교수는 농식품 브랜드를 활용하여 주민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고창을 찾게 해서 고창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합적인 견지에서 되짚어보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하고 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포럼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예부터 고창은 보리생산이 많았던 지역이었던 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보리 재배 장려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이 19일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안상설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값도 싸고 친절할 전통시장'

부안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진행

부안군은 19일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안상설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병순 부안부군수와 공무원, 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 및 체력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였다.

군은 이날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전 직원이 전통시장에서 점심식사를 연중하였고 자발적으로 3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와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캠페인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병순 부군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명절 물가점검을 병행했으며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부안상설시장 남정수 상인회장은 "이무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들어서도 명절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이 10% 더 싸다"며 "값도 싸고 친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자랑하는 부안상설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부안상설시장 장보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쏘포면과 진서면에 등 전통시장 살리기와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캠페인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추석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위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단체 43개소, 경로당 717개소와 저소득층, 장애인, 한 부모, 독거노인 세대 등 총 2,200여 세대에 총 1억2,4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시민들과 지역 내 유관기관, 봉사단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과 시 자체 사업비로 마련됐다. 시는 성금과 위문품의 저소득층에 중복지원 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19일 지체장애인협회와 보호회관 등 27개소를 방문해 단풍미인쌀 155포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위로·격려했다. 앞서 김인태 부시장은 지난 18일 정읍 은혜의집과 정읍 애육원 등 2개

소를 방문하여 시설 생활인과 종사자를 위로했다. 한편 공직자들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시 산하 직원들은 복지시설·단체와 저소득층 총 150여 세대에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하는 등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기부도 이어져 지난 13일 정읍시 의사회(회장 이용호, 한서요양병원장)가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안정용)가 19일 400여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하는 등 명절을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소외되는 일 없이 따뜻한 복지안정망 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복지정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 선정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2019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8월 9일 공모 접수 후 9월 4일 자격요건, 적정성, 체계성·합리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발표 및 질의 응답 평가 결과 전국에서 20개소 신청하여 1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부안군 1개소가 선정 되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무병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식수산물 생산 가능한 첨단 친환경 예방양식시스템을 갖춘 양식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국비 3억, 지방비 3억, 자부담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서수산 영어조합법인(대표 오우선)은 진서면 곰소에서 축제식과 옥상수조식 양식장을 견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어조합법인으로 2019년 해수용 압력식 모래여과기를 이용한 옥상 해수 순환

여과식 양식장을 조성하여 우량종묘(돌돔, 조피볼락) 생산과 돌돔 성어를 안정적으로 사육·생산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어업 기반 구축을 통하여 차세대 양식 어업인 후계자 육성, 해양오염 예방, 고용창출 등 한 차원 높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친환경 양식어업의 모범적인 모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